TDB 경기동향조사(전국)– 2026 년 8 월 조사 –

2026 년 9 월 3 일
주식회사테이코쿠데이터뱅크 정보통괄부
https://www.tdb.co.jp
https://www.tdb.co.jp/report/economic/#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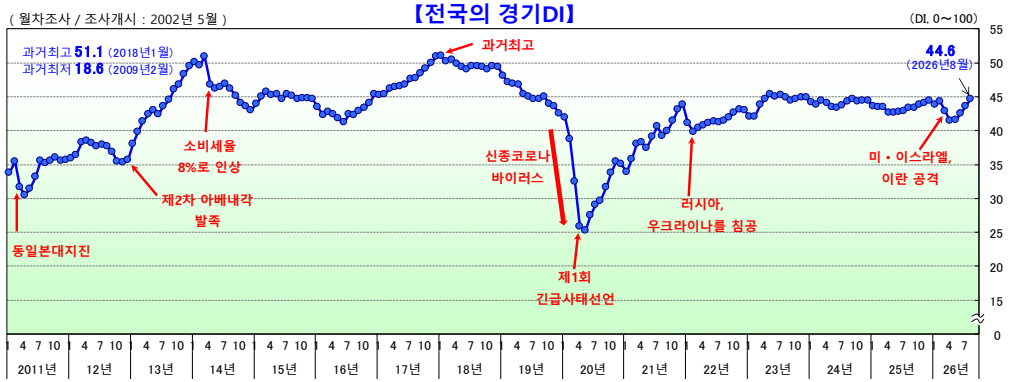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4 개월 연속 상향

～ 여름철 개인소비와 AI・반도체 관련 수요가 견인 ～

(조사대상 2 만 2,060 사, 유효회답 1 만 560 사, 회답율 47.9%, 조사개시 2002 년 5 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1. 2026년 8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1.0포인트 증가한 44.6으로 4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매출 회복 및 AI・반도체 관련 수요 확대가 상승 요인이었다. 향후의 경기는 하방리스크를 떠안고 있으면서도 완만한 개선이 전망된다.
2. 10개 업계 중『제조』『운수・창고』등 8개 업계가 개선,『농・임・수산』등 2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제조업의 생산・수주 증가 및 공공 공사, 설비 관련 수요, 귀성・관광 등의 계절수요가 폭넓은 업종에 파급되었다. 규모별로는 3개월 연속 전규모가 개선되었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된 한편,『큐슈』는 2026년 쿠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이벤트 중지 및 방문객・생산・물류의 정체가 영향을 미쳐 악화되었다.
3. [이번달의 토픽스]『제조』의 경기DI는「전기기계제조」를 포함한 3개 업종이 50을 상회하는 등 고수준으로 추이하였다. 호조인 반도체 관련 업종에서 왕성한 수요를 나타내는 의견이 많이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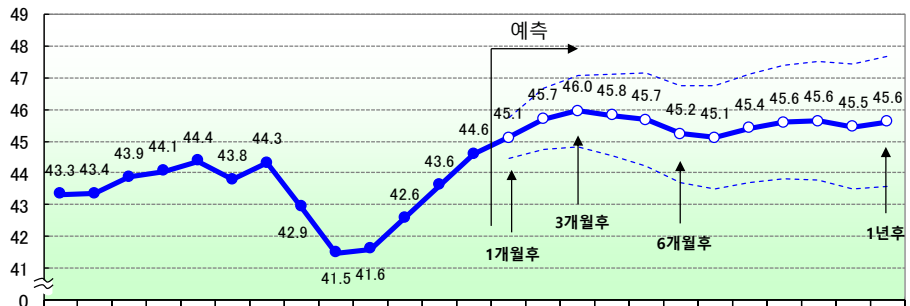
< 2026년8월의 동향 : 개선 >

2026년 8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1.0포인트 증가한 44.6으로 4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매출 회복 및 AI・반도체 관련 수요 확대를 축으로 제조부터 소매까지 폭넓게 회복하였다.

연휴로 인한 귀성이나 여행, 외식 등의 계절수요가 개인소비를 지탱한 한편, AI관련수요가 기계 및 전기기계, 정보서비스 등에 파급되었다. 또한 엔저(円低)가 잠시 안정된 상황이나 한여름의 전기・가스 요금지원도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폭넓은 지역에서 체감경기가 상향하였다. 한편, 각지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물류, 관광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체감경기를 하락시키고, 사입단가의 고가상태 및 인력부족도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향후의 전망 : 완만한 개선 >

향후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및 2026년 쿠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복구・재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활동과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지탱하여 AI관련 수요도 설비투자에 힘을 보탤 것이다. 한편 중동정세로 인한 원유고는 물가・물류비를 상승시켜, 장기금리 상승도 설비・주택투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의 경기는 하방리스크를 떠안고 있으면서도 완만한 개선이 전망된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25년					2026年												2027年							
경기DI	43.3	43.4	43.9	44.1	44.4	43.8	44.3	42.9	41.5	41.6	42.6	43.6	44.6	45.1	45.7	46.0	45.8	45.7	45.2	45.1	45.4	45.6	45.6	45.5	45.6
2026년8월비														0.5	1.1	1.4	1.2	1.1	0.6	0.5	0.8	1.0	1.0	0.9	1.0

※경기예측 DI 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TEIKOKUDATABANK, LTD.2026